

시끌벅적 e-스타



박용수의 팝스 칼럼



여자 아나운서와 결혼하는 법

“유학은 필수! 명문가도 필수! 펀드 매니저는 선택~”
여자 아나운서와 결혼하기 위한 방법 이란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절망스러운 사람들에게도 희망은 있다. 개그맨 유재석처럼 ‘국민MC’가 되면 아나운서 예인을 얻을 수 있구나 어쩐다.
16일 인터넷포털 ‘다음’에 올라온 ‘여자 아나운서랑 결혼하려면?’이라는 따끈따끈한 동영상에 등장 하루 만에 1만 건의 조회 수를 넘어서며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동영상은 얼마 전 예비신부 일을 밝힌 강수정 아나운서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신랑은 누구?’라는 화면 뒤에 하버드대 출신의 홍콩 대형 금융사 펀드 매니저라는 화려한(?) 경력의 예비신랑에 대한 설명이 등장한다.
이어 MBC의 간판 앵커 김주하를 비롯한 최유영, 노현정, 황정민 아나운서의 남편

사진과 프로필이 차례차례 공개된다. 역시 화려하다. 동영상에는 미녀아나운서-해외파 신랑이라는 새로운 공식 소개와 스타 아나운서를 ‘결혼 후 외국 생활은 기분?’이라는 얘기도 등장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던가? 미녀 아나운서를 시집보내는 못남성들이나, 잘난 남자에게 시집가는 아나운서를 보는 여성들이나 동영상에 본 후 반응은 그리 좋지 않다.
“넌장녀들이 저래서 아나운서 하려고 기를 쓴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뭐”
“아나운서들이 쇼프로에 나오면서 연예인으로 착각해서 생긴 현상이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네티즌은 손범수와 진양혜, 박지윤과 최동석 커플을 예로 들면서 본인이 아나운서가 되면 미녀 아나운서를 얻을 수 있다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성장하면서 느끼는 선입견은 어른이 되어서도 좀처럼 바뀌지 않아서 우리 삶에서 참으로 무서운 존재로 다가온 한다.
요즘 아이들이 자주 쓰는 은어 중에 ‘오나전 깨안습’이란 말이 있다. TV 포 프로그램에 그 말이 등장해서 고2인 아들에게 물었더니 ‘오나전’은 컴퓨터 키보드 자판의 ‘완전’의 오타이고 깨안습은 ‘안구’에 습기 찬다’ 즉, 눈물이 날정도로 안타까운 뜻이라는 것이다.
완전 눈물나게 불쌍한 처지라는 뜻이 아들에게겐 최고의 모욕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전에 아이들이 쉽게 쓰는 말 중에 ‘재수 없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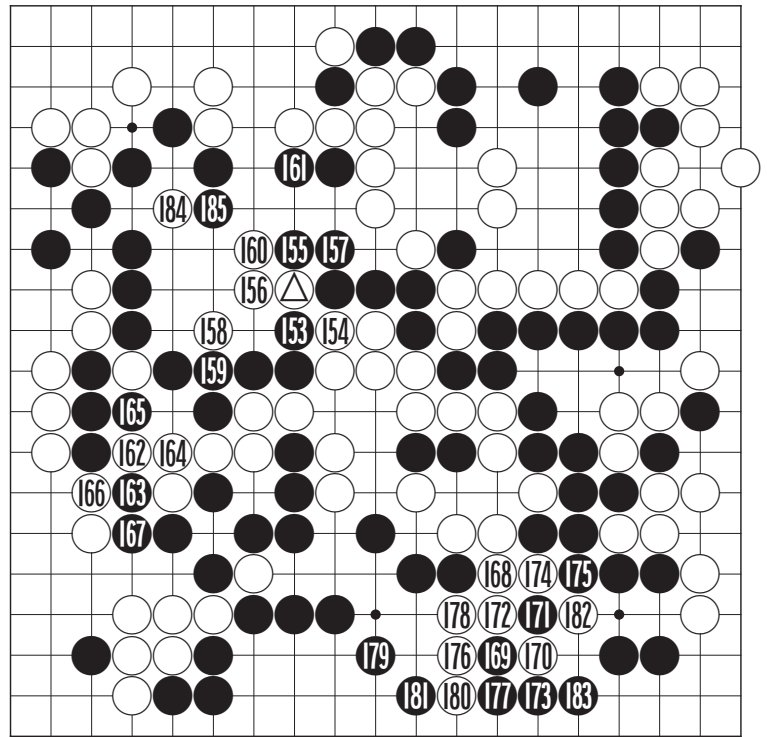


이 결코 우리 아이들의 전부는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치부해 버린다. 이미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배어버린 고정관념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요구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저, 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단순한 재미로 하는 것 일 수도 있다고 이해하자. 어른들이 살아오면서 느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모두 옳다고는 하지 말자. 우리도 부모님의 세대에게서 그것을 느끼고 자라 오지 않았던가?
오늘 소개할 음악은 세대 간의 갈등을 표현한 음악이다. 진보적인 Rock 음악을 하는 그룹 Genesis

“네 아이 울음에서 부모 음성을 들을거야”

말이 유행했던 게 생각났다. 너무도 쉽게 그 말을 쓰는 아이들에게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기 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단순한 재미로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말...
물론 지나간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다.
친구들끼리만 통하는 기호를 만들어서 은어로 썼던 기억, 그것은 남들이 알 수 없는 우리만의 언어이기에 더욱 스풀 있고 좋았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상대방의 외모나 살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의 척도가 되는 현실이 아쉽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
가진 자만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의식,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비롯되는 악영향에 우리 부모들은 민감해져 있다. 긍정 보다는 부정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그에 따른 병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

의 기타리스트인 마이크 러더포드가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 결성한 Mike & The Mechanics 의 88년 작품이다.
빌보드 차트 No.1을 차지한 이곡은 아버지와 자주 대화를 하지 못한 애석함과 아쉬움을 표현한 음악이다. 마이크 러더포드의 기타연주는 대단히 리듬감이 좋고 풀 캐락의 보컬 또한 강한 호소력으로 다가온다. 이어지는 해 맑은 아이들의 코러스는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레 음악에 동화되게 하는 매력을 발산하는 곡이다.
이 음악은 기성세대들에게 어른들의 과거와 아이들의 현재로 모두를 희생하지는 말자고 노래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크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렴! 상대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너희가 어른이 되어서 태어난 네 아이의 울음 속에서 부모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테니... 세월이 흘러 서로의 존재가 없어질 때 후회하는 것은 너무나 늦지 않나?”라고...
《팝칼럼니스트·광주 TBN 낭만이 있는 곳에 진행자》



제5회 KBC시각배
중고등부 결승전
白 김근홍 4단 (전자공고 1)
黑 강지수 4단 (문성중 1)
백 △가 최후의 승부수로 김근홍군이 안간힘을 다해 흑의 유일한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장면이다.
흑 153으로 두고 155로 단수진 것이 정확한 수순이다. 강지수군은 초읽기에 몰린 와중에서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빈틈없이 응수하며 백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
백 158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단수치고 3으 연결하면 대마가 살아갈 수

바둑소식

김기용·김승재 비씨배 4강행

김기용 4단과 김승재 초단이 제18기 비씨카드대 신인왕전 4강에 올랐다. 김기용은 지난 15일 서울 홍익동 한국기원 대국실에서 벌어진 이 대회 8강에서 원성진 9단을, 김승재는 박승철 초단을 각각 꺾었다.
김기용은 전기 우승자인 원성진이 중반 이후 중앙의 대마를 무리하게 공격하면서 손실을 입은 틈을 타 승기를 굳혔다. 신에 기전 중 최고의 규모인 이변 대회는 한국기원이 주관하며, 제한시간은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이다. 우승 상금은 2천500만원이다. 사이버오로(http://www.cyberoro.com/)는 본선 이상의 모든 대국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리빙 센스

가구 흠 손질과 광택내기

아이들이 있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가구 생활 날이 없죠? 흠이 난 가구 반들반들 광택 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크레용과 매직펜
가구와 같은 색의 크레용과 매직펜을 흡입이 난 곳에 칠해 주세요. 투명한 매니큐어를 위에 살짝 발라주면 갑갑함이 흠이 난 곳을 감출 수 있습니다.
▲굴 곁질
굴 곁질 삶은 즙을 이용해 가구나 상을 닦아주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납니다. 폴드크림을 써도 좋습니다. 원목 가구는 물걸레로 닦으면 수분이 흡수돼 때가 쉽게 끼므로 마른걸레로 원목용 왁스를 묻혀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지
가구의 뒷면이나 아래 쪽에 쌓여있는 먼지를 신문지를 이용해 손쉽게 위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를 물에 살짝 적셔 먼지가 있는 곳에 대고 흔들여 주면 먼지가 묻어납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월 17일(음 12월 10일 丙辰)
子	36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48년생 新舊文書를 잘 살펴보고 괴로움이 발생한다. 60년생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 운은 판단이 되리라. 72년생 남의 말을 듣지 마라. 손재가 따른다. 84년생 일이 지연되나 좋은 쪽으로 향한다. 행운의 숫자 : 13, 43
丑	37년생 많이 얻으려거든 많이 베풀어라. 49년생 대운으로 향하나 그릇이 작구나. 61년생 새로운 일은 활발한 일터가 되니 재물이 생길 수다. 73년생 친인척의 조언으로 도움을 얻게 된다. 85년생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 23, 39
寅	38년생 친구끼리 다투니 생방이 손실이다. 50년생 협상으로 처리하면 좋은 결과 얻으리라. 62년생 세치의 혀가 잘못하여 법원까지 가거나 신중할 하루를 보내라. 74년생 거정에 즐거운 일이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 10, 33
卯	39년생 시비 구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하리라. 51년생 힘이 든 하루였으니 휴식을 취하라. 63년생 상황 따라 길흉이 바뀌나니 삼사숙고해야 한다. 75년생 불만족스런 하루지만 혼자서 자위하라. 행운의 숫자 : 15, 41
辰	40년생 잘못된 문서로 눈물이 난다. 52년생 엄중하게 큰일을 벌려먹을 때도 못 찾는다. 64년생 호사다마 찾아나가는 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76년생 손실은 투자가 되리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0, 27
巳	41년생 잘 될 때를 조심하라.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난다. 53년생 부인의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긴다. 65년생 뜻하지 않게 진행되나 이득은 미지수다. 77년생 만났던 협조자가 도움을 주지만 기약은 없다. 행운의 숫자 : 24, 32
午	42년생 달빛으로눈은 파랗게 익지 않으니 적절한 방법을 취하라. 54년생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66년생 밤손님이 보이니 문단속을 잘하라. 78년생 내 것 주고 먹 먹는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4, 16
未	43년생 남의 입에 놀아난다. 55년생 밖은 조용하나 집안이 시끄러우니 집안을 살펴보고. 67년생 뜻하지 않은 여인을 만날 수도. 79년생 귀한사람이 목마르게 왔으니 준비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 22, 43
申	44년생 불평사가 갑자기 나타나니 행동에 신중해야 하리라. 56년생 배우자의 불평사가 예상되니 잘 보살피야 하리라. 68년생 오늘은 가정에서 인내해야 하리라. 80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 18, 30
酉	45년생 거정에 대고 예상되니 하루 종일 살펴보고. 57년생 가까운 사람간의 큰 싸움이 생길 수니 신뢰를 쌓아 봐라. 69년생 대화가 많으면 오해는 없으리라. 81년생 겉으로 보기는 침착되나 실속은 있다. 행운의 숫자 : 12, 25
戌	46년생 가끔은 싸우는 것이 부부사이지만 지나치면 큰 일 난다. 58년생 모든 일에 신중함도 있어야 하나 오늘은 과감하게 추진하라. 70년생 잘못된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된다. 82년생 오늘은 마음껏 웃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2, 31
亥	47년생 변화는 새로운 일을 만든다. 59년생 발전은 약속되었고 시작된 날았다. 71년생 과신은 손재를 부르니 물다리로 두드리며 건너라. 83년생 실패는 과욕에서 출발하니 조심하게 진행하면 성공한다. 행운의 숫자 : 19, 42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078>	오하오우 니혼고 <1078>	니하오 쑹구위 <55>	한자 이야기 <695>
<p>Maybe you should switch companies</p> <p>회사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p> <p>A : This company keeps ripping me off. B : Maybe you should switch companies. A : I'm thinking about it. B : I'd do it.</p> <p>A : 이 회사는 나를 계속 이용한다니까요. B : 어쩌면 자네 회사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A : 저도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B : 나라면 그렇게 한다니까.</p> <p>* rip off : 속이다 * switch : 바꾸다 * 자네는 하루 휴가를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 Maybe you should take tomorrow off. * 그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도 좋을 듯한데. = Maybe you should tell her you're sorry.</p>	<p>そのお寺(てら)はいつ建(た)てられたんですか。 그 절은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p> <p>A : 昨日(きのう)お寺(てら)の見物(けんぶつ)はどうでしたか。 B : 途中(とちゅう)で雨(あめ)に降(ふ)られてよく見物(けんぶつ)ができませんでした。 A : それは困(こま)りましたね。そのお寺(てら)はいつ建(た)てられたんですか。 B : そうですね。記録(きろく)によると、千年前(せんねんまえ)に建(た)てられたそうです。</p> <p>A : 어제 절 구경은 어땠습니까? B : 도중에 비를 만나 잘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A : 그거, 난처했겠군요. 그 절은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B : 글썄요, 기록에 의하면 천년 전에 세워졌답니다.</p> <p>見物(けんぶつ)する : 구경하다 お寺(てら) : 절 困(こま)る : 곤란하다, 난처하다 記録(きろく)によると : 기록에 의하면</p>	<p>我迟到了 늦었습니다</p> <p>A : 对不起, 我迟到了。 dài bu qǐ, wǒ chīdào le. 미안해요, 늦었어요. B : 你怎么现在才来? Nǐ zěnmé xiànzài cái lái? 니 언제 이제 와서 왔어? A : 因为今天下雨, 等车的人很多。 Yīnwèi jīntiān xià yǔ, děng chē de rén hěn duō. 오늘이 비가 많이 오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B : 那你应该早点儿出门。 Nà nǐ yīnggāi zǎo diǎnr chūmén. 나 너 일찍 나왔어야지.</p> <p>A : 遅刻(ちかく), 늦었어요. B : O. 遅刻(ちかく)はダメだよ? A : 오늘 비가와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B : 그렇죠, 일찍 나왔어야지.</p> <p>迟刻 {chídàc} 작적작적, 늦게 도착하다 迟 {chí} ...{기} {뒤} {늦}... ...{늦}... 应该 {yīngāi} ...{가} {뒤} {늦}... ...{늦}... 早点儿 {zǎo diǎnr} 일찍</p>	<p>自縛自縛(자승자박) 스스로 자, 줄 승, 스스로 자, 묶을 박</p> <p>자승자박(自縛自縛)은 자기가 끈 새끼줄로 자기를 묶는다는 말로, 자신의 언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고통 못하게 되는 일을 비유한다. 즉 자신이 남을 망치기 위해 마련한 어떤 계략이나 무기로 오히려 자신이 화를 당한다는 의미이다. 비슷한 용례로는,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는 ‘자법자패(作法自弊)’와, 남을 속이려다 스스로가 속는다는 ‘기인자기(欺人自欺)’가 있다. 자승자박은 본래 ‘자박(自縛)’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원섭(原涉)의 노비가 시장에서 백정(白丁)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 죽이고 말았다. 이에 무릉(茂陵)의 태수 윤공(尹公)은 그것을 빌미로 주인인 원섭을 죽이려고 하자 협객(俠客)들이 제안하길, “원섭의 종이 법을 어긴 것은 부덕(不德)한 탓이므로, 그에게 뒷옷을 벗고(肉袒) 스스로 묶어매고(自縛) 화살로 귀를 꿰고 법정에 나가서 사죄하게 하면, 당신의 위엄도 충분히 될 것이다.”고 하였다. (漢書, 遊俠傳) 이처럼 ‘자박’이란 말은 ‘항복의 표시로 자신의 몸을 묶고 관용을 청하는 것’이었으나, 뒷날 불교의 영향으로 ‘스스로를 억압하여 가둔다.’ 즉 ‘스스로 번뇌(煩惱)를 일으켜 괴로워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p>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